

# “주택대출 리스크... 가계 부실 부른다”

## 삼성경제연구 경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은 변동금리 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구조가 취약,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부분 가계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규모와 금융자산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4.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2004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

## 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 빠르게 상승 투기적 수요 차단...주택시장 급냉 방지해야

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4%로 금리변동 리스크를 대부분 가계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는 한국 가계가 금리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통해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자금이동에 대응해 은행이 양도성에 금융자산(CD) 발행을 늘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해 주택시장의 버블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자금수요 등에 의해 과도하게 증가해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지출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태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당분간 침체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며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금리동결, 슈퍼펀드 조성 등의 조치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국 소비시장 위축과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 3년이상 중단된 한·일 FTA 새정부 실용외교로 재개될 듯

3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한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새 정부 들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일관계 개선 등 '실용외교'와 경제협력 강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 후쿠다 야스오 현 일본 총리 역시 "대 아시아 관계 중시"를 표방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선자의 지지계층인 재계는 물론, 이 당선자의 FTA공약에 관련된 브레인들로부터 한·일 FTA 논의가 필요성이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어 한·일 FTA를 뒤로 미뤘던 참여정부와 정책기조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간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일 FTA는 FTA 때마다 최대 피해산업인 농수산업이 특을 보는 몇 안 되는 FTA라는 점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다른 산업계의 이해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FTA 확대 나설 듯=이 당선자가 이길 자기 정부에서 일본 외에 다른 자유무역협정(FTA)들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오래 경험한 당선자로서는 '개방과 경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진행중인 한·유럽연합(EU) FTA를 비롯, 한·결코 공동체(GCC) FTA 등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거대 경제권과의 연이은 FTA로 인한 국내 경제의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인 FTA 전략에 효과도 있지만 타협의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내용 면에서 부실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다"며 "국익의 극대화라는 원칙 속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경제 早老화 지속”

## 현대경제연구... 투자정체·성장 잠재력 고갈

한국경제가 외형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조로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내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선진국가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40위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는 약 24위에 해당된다. 명목 GDP 1조 달러는 지난 1986년 1천11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2년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세계 순위 약 10위권 정도의 경제규모에 해당된다.

연구원은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 경제가 투자 정체로 인한 성장잠재력 고갈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선진국의 선진국'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아너스 클럽과의 소득 격차가 2000년 1만6천641달러에서 2004년 2만5천396달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선진국의 후진국'인 영연한 중진국의 위치로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외형상 풍요속 경제조로화 지속' 외에 내년 국내 트렌드로 ▲부동산 달레마 가속 ▲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까지, 고물가 등 신4억 역경의 가속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선회 ▲신수출사업 투자 확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금융산업내 구조조정 가열 ▲책임있는 기업에 대한 욕구 증대 ▲신남북경협 시대의 분위기 조성 ▲국내 체류 외국인 2% 시대...다문화시대의 신갈등구조 부각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STX가 영국의 메이저 석유기업인 셸(Shell)사와 유럽 해상 3개 탐사광구에 대한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사진은 최근 STX남산타워에서 개최된 '유럽 해상광구 지분양수도 계약식' 모습. /연합뉴스

# 줄잇는 IPO... 증시 판 커진다

<기업공개>

## 금호 렌터카 등 내년 100여개 기업 상장 추진 생보사·공기업도 가세... 주식시장 활력 기대

대기업들이 내년엔 줄줄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와 공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이 잇따라 상장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100여개 기업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사 서너배 증가 전망=25일 증권선물거래소가 국내 증권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취합한 결과, 내년엔 56개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년에 비해 서너배 많은 수치다.

우선 연내 상장이 불건전한 생명보험사들이 내년엔 적극적으로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생명 등 올해 들어 상장 요건의 하나인 내부유보율(납입자본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유력한 '생보사 상장 1호'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동양생명도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과 더불어 '빅3'로 꼽히는 교보생명은 일정이 다소 불투명하지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보사·공기업·대기업 계열사들 주식시장 '뚝뚝'=정부의 공기업 상장 계획에 따라 올해 12월14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한전KPS에 이어 기은캐피탈과 지역난방공사도 내년에는 주식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과 주관계약을 체결한 기은캐피탈은 내년 상반기 상장이 예정돼 있으며 삼성증권과 주관계약을 맺은 지역난방공사도 내년엔 상장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사들도 증시 호황을 틈타 유가증권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시가총액이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코건설은 곳모

험한한증권 등과 대표 주관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차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기계업체인 위아도 미래에셋증권 등과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자산가치가 1조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STX그룹의 선박엔진 부품업체인 STX엔코,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렌터카 등도 내년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기업 상장 '타락'=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렌허커지공구와 삼철조명,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등 5개 중국 기업이 국내 상장 주관사를 통해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예약해놓은 상태다.

▲코스닥 새내기 기업도 증가추세=코스닥시장의 신규 상장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실질 청구를 과 예비심사 승인율이 크게 떨어지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거래소측은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 원유 배럴당 80달러 육박

## 도입 단가 3개월째 오름세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도입 단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79.49 달러로 전월보다 3.8 달러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에 운송요금, 보험료 등을 더해 산정되는 원유도입 단가는 국내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원유가격이어서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공장도 및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준다.

원유도입 단가는 지난 3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며 4월 63.56 달러, 5월 65.89 달러, 6월 69.04 달러, 7월 70.83 달러 등으로 70 달러를 돌파했지만 8월에는 70.75 달러로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9월 70.93 달러로 다시 오르며 10월 75.69 달러 등으로 11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원유 수입물량은 7천90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늘어났지만 수입금액은 62억4천6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42.5% 증가했다. 이는 11월에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 “코스닥 내년엔 900 간다”

## 증권업계 장밋빛 전망 잇따라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시장이 내년에는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2008년 코스닥지수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 2002년 4월 이후 처음 9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닥시장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계단식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지수는 900선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강세장에서 조망받지 못했던 IT와 자동차, 휴대전화 부품 관련주 등을 투자유망업종으로 추천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원은 “내년 코스닥시장은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며 예상 지수 밴드를 670~900선을 제시했다.

그는 “IT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지구회사 전환예상기업, 2차전지산업, IPTV(인터넷 TV) 관련기업, 남북 경협주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펀드 중심의 간접투자문화 정착으로 기관화 장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도 코스닥시장의 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IT·금융·경기소비재·반도체 장비 등 업종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조선·반도체 ‘맑음’ 건설은 ‘흐림’

## 상의, 내년 업종별 전망

내년에 조선·반도체·기계 등 업종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건설·섬유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5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업종별 단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주요업종의 2007년 실적 및 2008년 전망조사'에 따르면 조선과 반도체·기계업종은 생산·내수·수출 등 전부분에서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 “휴대폰으로 기업정보 검색하세요” 상의, 20만개업체 모바일 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6일부터 국내 최대 기업정보 포털 '코참비즈' 사이트에 수록된 기업의 정보를 휴대전화로도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코참비즈는 현재 국내 35만여개 기업정보, 재무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며 이번엔 시작되는 모바일 서비스 대상기업은 이 가운데 20만여 업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1031+Nate 또는 MagicN'을 누르면 된다.

상의는 오픈 기념으로 1개월 무료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니스트전자	생산설비 관리사원 및 생산간부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6	062-955-1532
①행남자기광주총판	납품 사원 및 영업사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7	062-527-2627
풍기산업(광주공점)	경리/회계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7년	회사내규	12/28	062-973-6011
웨딩하우스	웨딩플래너/여행사원/웨딩도우미, 주부시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8	062-222-2344
참사랑한의원	한의원 업무 담당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28	017-623-8275
한빛경찰전문학원	상담, 수강생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12/29	062-262-3553
엘론서치	(금남로)하노텔레콤 고객센터(연 2,000만)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31	02-6012-9540
②한리메디칼	병원 영입 및 관리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262-3001
한이에스	한이에스(주) 정규직 영업딜러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45-2101
③신영외교로	일반사무직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62-223-2103
제이씨엔시스(주)	컴퓨터 부품, IT 제품 영업관리 담당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10-3205-4229
④엠씨에스텍	(광주)전산시스템(서버,DBA) 관리 및 운영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2/31	02-6332-5813
⑤인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채용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04	062-601-7213
시트피아	웹디자인/인터넷쇼핑몰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04	010-5059-891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경쟁력 약화 등 불안요인이 뚜렷해 생산과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상의는 내다봤다.

이밖에 유럽·중동 등으로 시장다변화를 꾀하는 석유화학과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전자, 건축업종은 중국산 철강계의 수출감소가 예상되는 철강은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 것으로 전망됐다.

정유업종은 불량기준으로는 부진하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중 D램 가격의 반등과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시장의 급팽창이 예상된다.

기계업종 역시 수요산업의 견실한 성장 속에서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로 지속적인 호황이 전망된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 사태 등에 따라 전반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설과 중공,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국내외 시장 잠식이 지속되고 있는 섬유는 내년 1·4분기에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는 신차출시 확대와 노후차량의 대체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호조를 보이지만 미·유럽시장의 침체와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한 가

상이는 내년 1·4분기에는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의 경우 수주실적의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